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4. 24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유리, 사무관 최혜리, 주무관 이은일 • ☎ (044) 201-3365, 3373	
보 도 일 시	2020년 4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창호·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예방적 관리로 건전한 생산·유통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.

### 11월까지 제조유통단계 합동 점검…시공 이전 단계 예방적 대응 강화

-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·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·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문 점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·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·유통단계 점검에 나섰다.
- 국토교통부는 '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·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해왔으며, 올해는 창호, 붙박이 가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기준\*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
\*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, 폼알데하이드(HCHO) 등

- 지난 '19년도 점검결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\*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고,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.

\* 실란트, 강화합판마루, 일반 붙박이가구, 부엌 주방가구, 목제창호 등 5종(15개 제품)에 대한 점검결과, 부엌 주방가구, 목제창호 등 3종(4개 제품) 부적합 판정

□ 올해는 '19년도 점검대상 제품이었던 목제창호, 부엌 주방가구, 일반 붙박이가구(침실·드레스룸 붙박이장, 현관·거실 수납가구 등)를 포함하고 PL창호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·시행한다.

○ 이번 건축자재 점검은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·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간 중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, 점검 자재별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친환경 성능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“건설자재의 경우에는 일반 제품에 비해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된 이후에 재시공 등의 후속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”이라면서,

○ “따라서 친환경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하여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·유통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, 국민들이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최혜리 사무관(☎ 044-201-33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